

# 2012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
2013. 3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

해외투자분석팀

## 목 차

요 약 .....	Ⅱ
I. 개 요 .....	1
II. 지역·국가별 동향 .....	3
III. 업종별 동향 .....	8
IV. 기 타.....	12

## < 요약 >

□ 2012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231.6억 달러를 기록, 2011년 대비 12.6% 감소

- 북미의 금융 및 보험업과 유럽의 광업 그리고 아시아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
- 신규법인 수는 2011년 대비 10.5% 감소한 2,470개 기록

### 【지역별】

□ 아시아, 북미와 유럽 투자 감소, 대양주와 중남미 투자 증가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, 북미, 유럽의 순으로, 2011년 대비 투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북미 지역과 더불어 3대 주요 지역 모두 감소를 기록
- 한편, 대양주 지역은 2010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

### 【업종별】

□ 상위 3개 업종중 제조업, 광업은 감소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대폭 증가

-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, 2010년 후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목적의 광업 투자 모두 감소를 보이는 중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큰 폭 증가로 3위에 오름.
- 한편, 2011년 중 3위에 있던 국민연금 대체투자 중심의 금융 및 보험업은 2012년 연기금 투자 대폭 감소로 6위에 그침

### 【기 타】

□ (기업규모별) 2011년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2011년 대비 9.6%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이 79.8%에서 82.5%로 증가

□ (투자규모별) 1억 달러 초과 규모의 대규모 투자비중 2011년 대비 감소

-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9.0%를 차지, 2011년의 51.0% 대비 감소하여 3년 연속 감소세 기록

□ (지분율별)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2011년 대비 증가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2011년 73.2%에서 2012년 75.5%로 다소 증가하는 등 2010년 이후로 지속 증가세

□ (투자방법별) 증권 취득 비중이 2011년에 비해 0.2% 증가

-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법 중 증권 취득이 전체의 83.2%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간 82.0% 이상의 비중을 보임

□ (법인형태별) 법인 설립이 투자금액 기준 87.5% 비중으로 대다수를 차지, 해외자원개발은 12.1%로 2011년 대비 감소

- 해외자원개발은 2010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오며 그 비중을 24.7%까지 확대해 왔으나 2011년 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축소로 감소세

□ (설립형태별) 신설법인의 설립 비중 전년 수준 유지

-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의 비중이 2012년 77.0%로 2011년 대비 증감 없음

□ (공공부문) 에너지 공기업 투자는 2011년부터 지속 감소세이며, 국민연금 투자는 2012년 들어 실적이 전무한 등 공공부문 투자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

- 공공부문 투자비중: '10년 30.1% → '11년 27.8% → '12년 22.3%

# I. 개 요

## 1. 연간 동향 및 주요 특징

- 2012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31.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대비 12.6% 감소

<표 1>

연간 해외직접투자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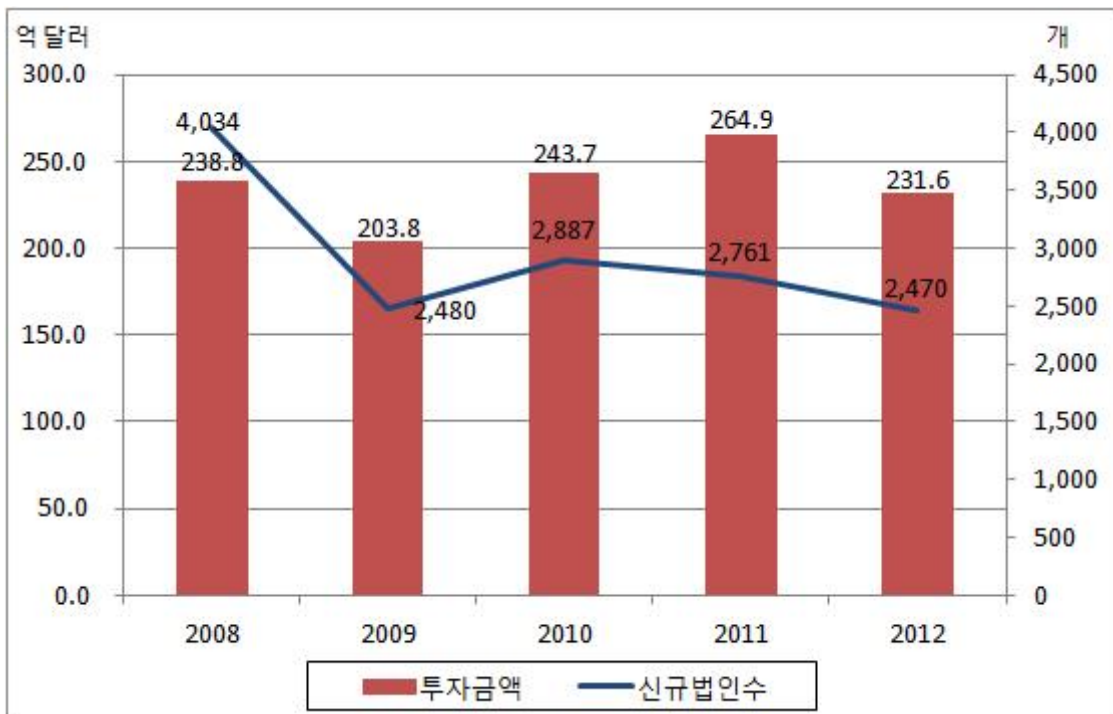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2012
투자금액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
(증가율)	(7.1)	(-14.7)	(19.6)	(8.7)	(-12.6)

- 2009년에 2008년 후반 시작된 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를 보인 후 지속 증가하여 201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, 3년만에 다시 감소를 기록함

<그림 1>

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실적(총투자기준)



- 2012년 신규법인 수는 2011년 대비 10.5% 감소한 2,470개로 2007년 5,690개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침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, 유럽 등 주요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, 대양주와 중남미 투자는 증가
  - 대양주 지역의 광업과 중남미 지역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, 북미의 금융 및 보험업, 유럽의 광업 그리고 아시아의 제조업이 감소를 보여 전반적인 감소세를 주도
    - 투자액 증감율('11 → '12): 북미(△38.8%), 아시아(△8.7%)
    - ※ 상위 10개 투자국가(억 달러): 미국 37.9, 중국 33.1, 오스트레일리아 22.0, 홍콩 14.8, 네덜란드 11.9, 인도네시아 9.6, 브라질 9.6, 필리핀 9.3, 베트남 9.3, 캐나다 6.6
- 업종별로는 전통적인 양대 업종인 제조업과 광업이 모두 2011년 대비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는 대폭 증가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제치고 3위를 차지
  - 투자비중은 상위 3대 업종 모두 2011년 대비 증가세
    - 투자 비중('11 → '12): 제조업(30.9% → 31.9%), 광업(28.6% → 30.2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.8% → 11.2%)
- 대기업 투자 비중은 2012년 들어 2011년 대비 증가한 반면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비중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감소세 지속
  - 대기업 투자액 비중: '11년 79.8% → '12년 82.5%
  - 대규모 투자 비중: '10년 54.1% → '11년 51.0% → '12년 49.0%
-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 투자는 업종내 비중이 증가한 반면, 국민연금의 금융 및 보험업내 투자 비중은 감소
  - 에너지 공기업의 광업 투자 비중: '11년 71.2% → '12년 74.0%
  - 국민연금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 비중: '11년 54.9% → '12년 0.0%

## II. 지역·국가별 동향

### 1. 개 관

- 2012년 중 지역별 투자는 아시아, 북미, 유럽의 순이며, 동 3개 지역 투자 비중이 전체의 76.1%를 기록, 지난 5년간 동 3개 지역의 투자비중은 80%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2년 들어 70%대로 감소
- 3대 지역 모두 투자 감소세를 시현한 가운데 북미가 특히 크게 감소함

<표 2>

####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아시아	11,766	6,769	10,066	11,080	10,114	-8.7%
북 미	5,263	6,000	4,624	7,266	4,449	-38.8%
유 럽	3,395	5,327	6,121	3,650	3,070	-15.9%
중남미	2,104	1,041	2,137	2,340	2,534	8.3%
대양주	771	549	778	1,519	2,279	50.1%
아프리카	320	374	291	372	365	-1.8%
중 동	264	322	349	268	353	31.4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지역별 신규법인 수는 북미와 아프리카의 소폭 증가율을 제외하고 2011년 대비 전반적인 감소세

<표 3>

####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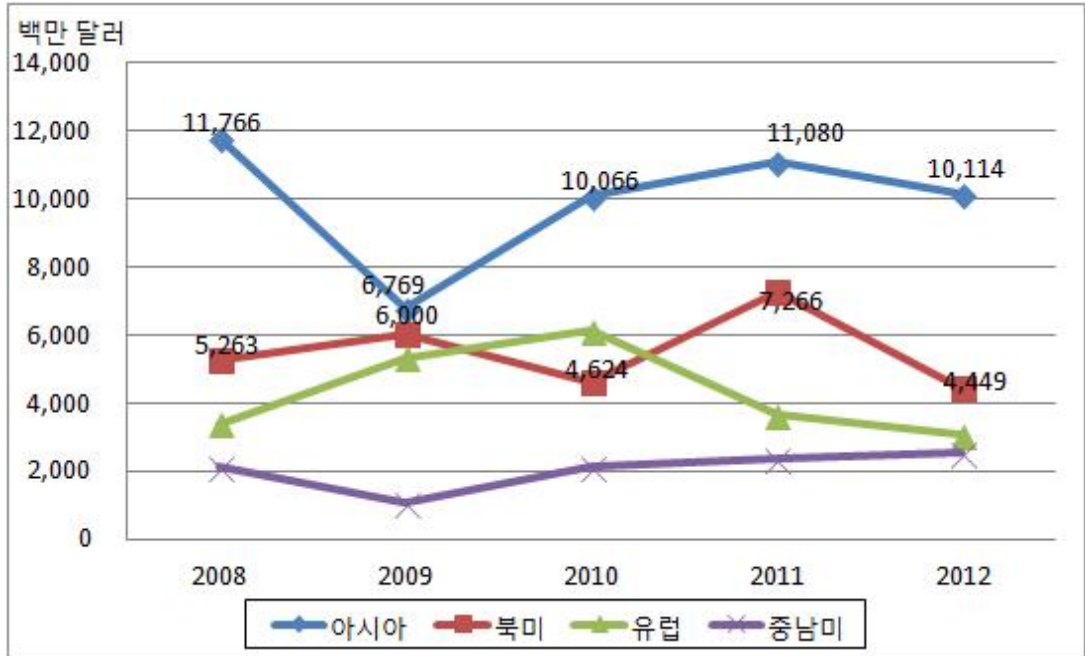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1	
아시아	2,754	1,580	1,934	1,860	1,677	-9.8%
북 미	808	536	552	467	469	0.4%
유 럽	197	131	154	155	122	-21.3%
중남미	93	89	94	110	92	-16.4%
대양주	101	60	71	76	53	-30.3%
아프리카	30	32	24	26	27	3.8%
중 동	51	52	58	67	30	-55.2%
합 계	4,034	2,480	2,887	2,761	2,470	-10.5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아시아 지역의 신규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.9%로 절대적인 반면, 투자금액 비중은 43.7%로 상대적으로 낮은 바, 이는 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임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## 2. 지역·국가별 동향

### 가. 아시아

- 아시아 지역은 최대 투자국인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, 투자금액은 상위 5대 국가 중 큰 폭 증가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2011년 대비 모두 감소

<표 4> 아시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중국	3,791	2,176	3,636	3,683	3,307	-10.2%
홍콩	2,589	1,567	1,272	1,558	1,477	-5.2%
인도네시아	503	347	880	1,246	964	-22.6%
필리핀	197	118	227	203	932	359.8%
베트남	1,374	610	846	1,050	928	-11.7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

- 업종별로는 최대 업종인 제조업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, 광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

<표 5> 아시아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제조업	4,255	2,746	5,365	5,804	4,859	-16.3%
광업	698	887	1,169	937	1,325	41.4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,268	369	174	230	896	289.9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598	372	1,006	1,451	798	-45.0%
도매 및 소매업	1,691	375	462	558	776	39.2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 나. 북미

-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2011년 57.1% 크게 상승한 이후 기저효과 및 금융 및 보험업 투자 급감으로 인한 큰 폭 감소세에도 불구하고, 투자금액 기준으로 2011년에 이어 투자지역 2위 자리를 고수

<표 6> 북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미국	5,097	3,565	3,391	5,945	3,786	-36.3%
캐나다	166	2,434	1,233	1,320	663	-49.8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최대 업종인 광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이 80.0% 감소를 기록하였으며, 제조업은 2010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 추세

<표 7> 북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광업	1,392	3,016	1,303	3,190	2,433	-23.7%
제조업	999	710	365	542	743	37.0%
도매 및 소매업	1,445	843	420	1,150	382	-66.8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597	645	279	343	377	10.2%
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	0	98	123	127	142	11.9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 다. 유럽

- 유럽 지역은 네덜란드와 스페인, 슬로바키아 등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, 영국의 광업 투자가 2011년 대비 큰 폭 감소하여 지역 전반의 감소세를 이끔

<표 8> 유럽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네덜란드	664	1,057	682	762	1,190	56.2%
스페인	16	114	56	48	352	639.8%
영국	189	1,710	3,280	1,323	235	-82.3%
터키	69	192	64	72	222	206.0%
슬로바키아	117	53	22	31	210	57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지역내 업종별로는 상위 3대 업종인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, 전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이 큰 폭 감소하여 4위에 그침

<표 9> 유럽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	597	1,010	326	501	1,249	149.5%
제조업	1,571	904	816	609	796	30.7%
건설업	177	54	7	90	286	218.5%
광업	312	775	3,284	1,504	284	-81.1%
도매 및 소매업	428	451	353	92	260	182.9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 라. 중남미

- 중남미 지역은 2010년도 이래로 지속 투자국 1위를 기록한 브라질이 감소한 반면, 멕시코 및 파나마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

<표 10>

중남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브라질	635	132	1,064	1,114	956	-14.2%
케이만군도	235	461	594	332	476	43.6%
멕시코	307	55	64	149	385	159.2%
파나마	241	241	163	162	330	103.6%
바베이도스	0	0	0	177	124	-30.1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제조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2012년 중 특히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큰 폭 증가세로 두각을 나타냄

<표 11>

중남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제조업	330	110	274	1,055	885	-16.2%
부동산업 및 임대업	88	132	195	94	550	485.1%
광업	756	158	862	322	383	18.9%
금융 및 보험업	553	478	570	468	370	-20.8%
전기·가스·증기·및·수도·사업	-	3	0	166	139	-16.3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 Ⅲ. 업종별 동향

#### 1. 개 관

- 업종별 투자는 상위 3개 업종인 제조업, 광업과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73.3%를 차지하는 가운데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기저효과 등으로 180.0% 크게 증가

<표 12>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제조업	7,231	4,567	7,027	8,197	7,394	-9.8%
광업	4,002	5,449	7,319	7,579	6,991	-7.8%
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	1,813	2,030	1,713	2,333	2,600	11.5%
도매 및 소매업	3,750	1,796	1,304	1,889	1,516	-19.7%
부동산업 및 임대업	1,767	2,489	1,595	528	1,478	180.0%
금융 및 보험업	2,164	2,002	3,273	3,602	943	-73.8%
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	89	343	313	586	788	34.4%
합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한편, 신규법인수는 업종 전반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2.5% 증가를 보임

<표 13>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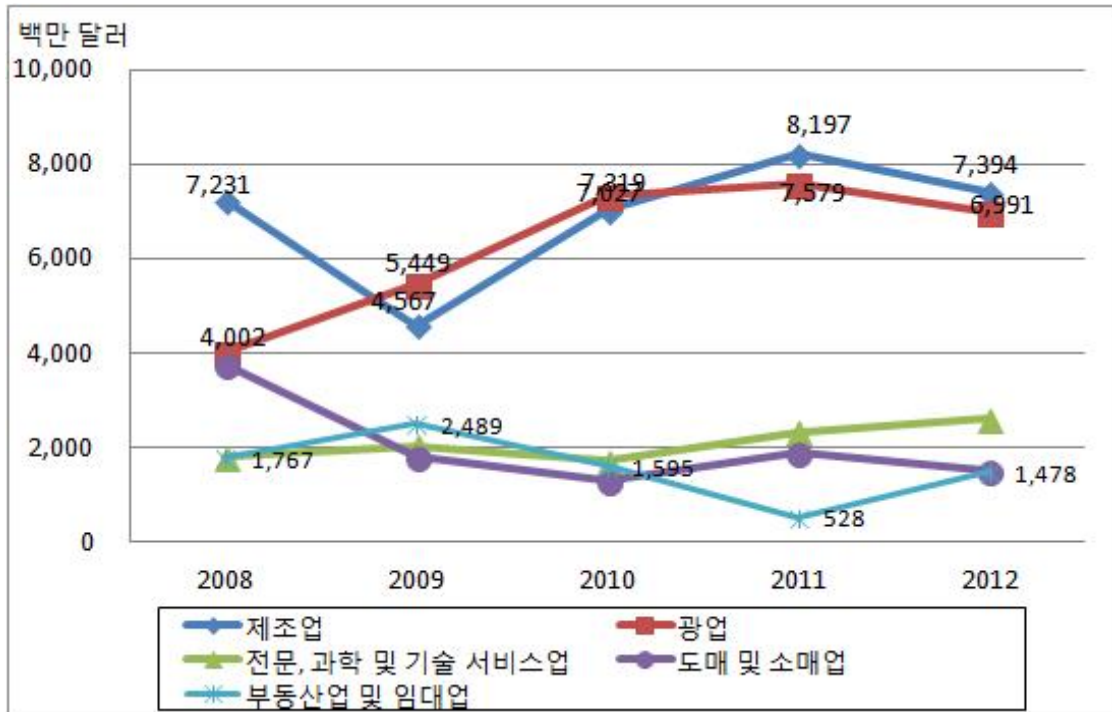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제조업	1,400	849	1,120	1,068	874	-18.2%
광업	108	68	54	48	40	-16.7%
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	217	131	145	146	139	-4.8%
도매 및 소매업	792	526	680	612	595	-2.8%
부동산업 및 임대업	290	93	94	64	72	12.5%
금융 및 보험업	85	47	63	69	42	-39.1%
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	15	25	19	20	36	80.0%
합계	4,034	2,480	2,887	2,761	2,470	-10.5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## 2. 업종별 동향

### 가. 제조업

- 제조업은 2011년 이래로 전체 업종 중 1위의 자리를 고수

<표 14>

제조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중국	2,347	1,704	2,756	2,835	2,303	-18.8%
필리핀	45	26	151	88	891	916.0%
미국	982	703	359	502	698	38.9%
브라질	13	7	134	919	635	-30.9%
베트남	677	311	453	525	500	-4.7%
인도네시아	164	77	171	848	472	-44.3%
인도	134	216	154	410	210	-48.8%
슬로바키아	117	53	21	29	209	613.5%
터키	41	176	51	59	187	216.6%
일본	77	33	34	41	162	298.3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국가별로는 전통적인 최대 투자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인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, 필리핀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여 2위를 차지
- 대필리핀 투자 급증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

<표 15>

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855	728	1,654	1,351	1,521	12.5%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1,606	948	676	1,101	1,286	16.8%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874	240	156	64	1,005	1,480.4%
1차 금속 제조업	693	352	453	1,918	815	-57.5%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402	268	1,651	540	368	-31.8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, 2위와 3위는 각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상위 3대 업종 모두 증가세를 보임

나. 광업

<표 16>

광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오스트레일리아	533	162	367	1,240	2,040	64.5%
미국	1,333	622	138	2,112	1,949	-7.7%
말레이시아	140	118	129	136	607	346.2%
캐나다	59	2,394	1,164	1,077	484	-55.1%
마다가스카르	108	285	166	296	272	-8.3%
인도네시아	48	135	564	140	245	74.5%
멕시코	0	0	0	96	243	154.2%
미얀마	35	348	162	352	221	-37.3%
베트남	216	147	159	169	169	-0.1%
네덜란드	62	501	262	646	154	-76.1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광업은 2010년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증가세가 2011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면서 2012년에도 감소를 기록
-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감소한 반면, 오스트레일리아는 큰 폭 증가

#### 다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위 투자국인 네덜란드가 2011년 대비 큰 폭 증가를 보인 반면 2010년 이후 최상위 투자국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 홍콩은 감소

<표 18>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네덜란드	30	85	180	46	899	1,834.8%
홍콩	432	237	670	1,006	652	-35.2%
미국	591	644	252	336	375	11.6%
아일랜드	39	517	1	0	202	0.0%
케이만군도	16	0	0	0	85	84,900.0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# 라. 금융 및 보험업

- 2011년 3위 투자 업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은 국민연금의 대미국 투자 급감으로 업종내 순위가 6위로 급락
- 국가별로는 미국이 4위에 그친 반면, 홍콩은 1위 투자국으로 부상

<표 17> 금융 및 보험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홍콩	161	811	248	214	272	26.9%
케이만군도	127	440	494	323	246	-23.9%
브라질	0	30	60	140	123	-12.0%
미국	58	121	1,603	1,460	70	-95.2%
오스트레일리아	0	1	175	25	60	135.5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 IV. 기 타

### 1. 기업규모별 동향

- 대기업에 의한 투자금액은 2011년 대비 9.6% 감소한 가운데 투자 비중은 대기업이 2011년 79.8%에서 2012년 82.5%로 다소 증가한 반면, 중소기업의 경우 비중이 2011년 16.3%에서 2012년 15.3%로 소폭 감소

<표 19>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금액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대기업	17,151	16,749	20,197	21,139	19,100	-9.6%
중소기업	5,763	3,313	3,648	4,309	3,536	-17.9%
개인기업	85	40	59	47	39	-16.7%
개 인	835	280	434	320	312	-2.6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50	1	28	680	177	-73.9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대기업이 투자한 신규법인수는 2011년 대비 13.8% 감소한 가운데 그 비중은 2011년 13.6%에서 2012년 13.1%로 감소, 중소기업의 경우도 비중이 2011년 47.3%에서 2012년 45.7%로 감소한 반면, 개인이 투자한 신규법인수 비중은 2011년 34.8%에서 2011년 37.0%로 증가

<표 20>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대기업	401	284	388	376	324	-13.8%
중소기업	1,866	1,183	1,345	1,306	1,129	-13.6%
개인기업	191	107	120	111	95	-14.4%
개 인	1,573	905	1,031	961	915	-4.8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3	1	3	7	7	0.0%
합 계	4,034	2,480	2,887	2,761	2,470	-10.5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

## 2. 투자규모별 동향

- 2012년 1,000만 달러 규모를 초과하는 투자가 2011년 대비 14.7% 감소한 가운데 비중이 전체의 81.8%를 차지하여 2011년의 83.8% 보다 축소
- 또한, 1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역시, 2011년 비중이 51.0%에서 2012년 49.0%로 축소

<표 21>

###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50만불 이하	818	545	592	560	518	-7.3%
50만불~200만불	1,379	950	1,073	1,001	946	-5.5%
200만불~500만불	1,833	1,325	1,386	1,308	1,236	-5.5%
500만불~1000만불 이하	1,707	1,131	1,380	1,419	1,525	7.5%
1000만불~5000만불 이하	5,311	4,126	4,353	5,077	4,546	-10.5%
5000만불~1억불 이하	3,002	2,644	2,399	3,614	3,044	-15.8%
1억불 초과	9,833	9,659	13,183	13,516	11,348	-16.0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 3. 지분율별 동향

- 최근 5년 연속 투자자의 지분보유율 50% 초과 투자가 전체의 85% 내외 수준을 유지해온 가운데, 이 중 100%인 투자는 전체의 70% 이상을 차지
- 2012년 중, 지분율 50% 미만과 100%인 투자는 광업이, 50% 이상~100% 미만의 투자는 제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

<표 22>

###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10%미만	738	381	306	192	247	28.4%
10%이상~50%미만	3,176	1,525	2,912	2,871	2,294	-20.1%
50%	355	655	189	685	687	0.3%
50%초과~100%미만	2,010	1,610	3,634	3,351	2,438	-27.2%
100%	17,604	16,211	17,324	19,396	17,497	-9.8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# 4. 투자방법별 동향

-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법 중 증권 취득이 2011년에 비해 14.5% 감소한 가운데 전체의 83.2%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 동안 82.0% 이상의 비중을 보임

<표 23>

#### 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증권 취득	19,574	17,321	22,028	22,543	19,275	-14.5%
대부채권 취득	4,309	3,061	2,338	3,952	3,889	-1.6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# 5. 법인형태별 동향

- 현지법인 형태는 법인의 설립이 투자금액 기준 87.5%의 비중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의 비중은 12.1%임
- 해외자원개발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채광권만을 매입하는 경우로, 2010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2011년 이후로는 에너지 공기업의 광업 투자가 축소되면서 감소 추세임

<표 24>

#### 법인형태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법 인	22,398	15,989	18,269	22,580	20,264	-10.3%
개인기업	106	48	56	36	16	-55.0%
기 타	17	7	31	55	72	29.6%
해외자원개발사업	1,362	4,338	6,011	3,824	2,812	-26.5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# 6. 설립형태별 동향

- 설립형태별로는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(그린필드형) 경우의 비중이 2012년 77.0%로 2011년의 비중과 동일함(동 통계는 2007년부터 작성)

<표 25>

설립형태별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신설법인설립(그린필드)	16,409	14,950	17,438	20,400	17,846	-12.5%
기존법인지분인수(M&A)	7,474	5,432	6,928	6,095	5,318	-12.7%
합 계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 기존법인 지분 인수(M&A형) 해외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가운데, 제조업은 증가한 반면, 광업은 감소를 보임

<표 26>

M&A형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제조업	1,616	836	1,526	1,609	2,110	31.2%
광업	1,315	1,336	3,917	2,115	1,193	-43.6%
도매 및 소매업	2,088	926	353	1,002	432	-56.9%
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	544	824	238	306	411	34.5%
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	3	77	58	114	312	172.7%
기타	1,908	1,433	835	949	860	-9.4%
합 계	7,474	5,432	6,928	6,095	5,318	-12.6%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### 7. 공공부문의 해외투자

- 광업 중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금융 및 보험업 중 국민연금 대체투자인 공공부문 해외투자는 2010년 이후로 지속 감소 추세임

<표 27>

공공부문의 해외직접투자

(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
에너지 공기업	957	4,532	5,852	5,399	5,172	-4.2%
국민연금	37	296	1,478	1,976	-	-100.0%
공공부문 투자 비중	4.2%	23.7%	30.1%	27.8%	22.3%	-

\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